

한전, ‘망 중립성’ 용역 착수… 20년 만에 전력개편 되나

에너지 고속도로·지역별 요금제 도입 앞두고 개방형 전력망 대비
송전계통·독립계통운영자 도입 검토…전력 독점 구조 바뀔지 주목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망 중립성 확보와 다각적 검토를 위해 용역에 나섰다.
이는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와 오는 2026년 도입될 예정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정책’, ‘분산 에너지 정책’ 등 급변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한전의 전력망 독점 구조 개편 가능성 유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전력당국과 한전 등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4일 ‘망 중립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최근 국내 에너지 체계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및 지역별 분산 발전원 증가세 등이 가속되는 가운데, 현재 상황에 맞는 송·배전망 중립성 개념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전력망 중립성 확보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 전력망 핵심 사업인 ‘에너지 고속도로’의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에너지 고속도

로는 개방형 전력망으로, 해당 정책이 도입되면 기존 한전과 발전 자회사 등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에너지를 생산·소비했던 것과 다르게 누구나 에너지 생산·소비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기업 간 직접구매계약(PPA)은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외 모든 전력 거래는 전력거래소를 통해 한전을 거치는 구조다. 하지만 이번 용역을 통해 지역별 한계 가격 및 송전계통운영자·독립계통운영자 도입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2001년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분할된 이후 20여년 만에 전력산업 구조가 개편될지도 주목된다.
구체적으로 이번 용역에서는 전력 도매요금 체계를 살펴본다. 계통한계가격(SMP)을 지역별한계가격(LMP)으로 전환하고, (전력망) 혼잡비용 반영 등을 연구한다.
해당 용역 결과가 실제 도입될 경우 한전이 전력

가격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 등이 분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해 오는 가격인 SMP는 한전이 발전원 종류 또는 지역과 무관하게 가장 비싼 발전소를 기준으로 정해 일괄 적용하고 있는데, 송전망이 발전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지역은 저렴한 원전 전력 등 공급이 어려워 혼잡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번 용역에서는 이같은 비용들을 전력 도매요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살펴본다.
또 송전계통운영자(TSO)와 독립계통운영자(ISO) 도입 등도 검토한다. TSO는 유럽의 전력 운영 방식으로 송전망을 소유하면서 운영도 담당하는 독립적인 기구다. ISO는 미국의 전력 체계로, 송전망을 소유하지 않지만 계통 운영과 접속을 관리하는 독립적인 기구다.
한전은 용역을 통해 해외 전력 운영 체계 사례들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력망 중립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시각으로 운영 체계를 살펴보기 위한 것일 뿐 해외 사례처럼 독립적인 기구로 전력망 소유 운영을 이관하는 방안 등은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전KDN, 축제 연계 ‘시민 안전체험존’ 운영

심폐소생술 등 실습 교육

한전KDN은 “지난 5·6일 광주김치타운에서 열린 ‘2025 빛고를 사랑나눔 김장대전’ 기간 중 시민 참여형 안전체험존을 운영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
이번 안전체험존은 지난달 15일 빛가람호수공원 일대에서 진행된 ‘나주시 사회경제제한마당’ 시민 참여형 안전문화 활동과 이어지는 활동으로 지역사회 생활안전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한전KDN은 실질적 체험, 교육으로 인한 일상 속 안전 문화 확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천

등을 위해 지속적인 지역민 참여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가상현실(VR)을 통한 일상 속 재난·사고를 간접 체험하고, 위험 요소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예방 활동에 중점을 뒀다.
또 심폐소생술·심장충격기 실습장 운영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대응 행동 요령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박상형 한전KDN 사장은 “일상 속 안전은 달성을 위해 실제 체험을 통한 몸이 체화할 수 있는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창립 117주년’ 한국농어촌공사, Re:Action 프로젝트 선포

성장동력 재충전 등 제시

한국농어촌공사(공사)는 “지난 8일 창립 117주년을 맞아 ‘KRC 비전 데이’를 열고, 공사의 새로운 청사진인 ‘KRC Re:Action 프로젝트’를 선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1부 ‘미래세대 비전’과 2부 ‘KRC 변화 비전’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청년 세대로 구성된 ‘청년이사회’가 미래세대의 시각으로 바라본 공사의 비전을 발표했고, 2부에서는 김인중 사장이 혁신 실행 전략인 ‘KRC Re:Action 프로젝트’를 선언했다.
앞서 김 사장은 지난 5월 취임사를 통해 ‘변화와 혁신의 일상화’를 강조하고, 경영혁신 방향 수립에 힘을 기울인 바 있다. 혁신 전담 조직인 ‘경영혁신기획단’을 구성해 국정과제 및 경영현황을 분석·진단하고, 농어업 등 정책 고객의 의견들을 수렴하기도 했다.
김 사장은 이를 바탕으로 KRC 비전 데이에서 새롭게 공사의 비전과 변화 방향인 ‘KRC Re:Action 프로젝트’를 내놔다. 프로젝트의 3대 중점



사항은 성장동력 재충전, 경영구조 재설계, 고객 신뢰 재회복을 제시했다.
우선 공사는 성장동력 재충전을 위해 농어업 식량안보 강화, 미래농업 육성, 농어촌 공간 혁신, 농어촌 에너지 전환, 유역별 물 환경 개선 등 본업을 혁신하고, 신성장 분야를 전략적으로 확장한다. 공사 업무의 지속 가능성을 다지고, 미래 농어업·농어촌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경영구조 재설계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재무건전성 개선, 재무위험 관리 강화, 조직·인력 운영 효율화를 목표로 한다. 경영 체계와 조직 운영 구

조 전반을 재정비하고, 급변하는 대외 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고객신뢰 재회복에는 윤리·안전·공감 캠페인, 지역사회 보편적 서비스 확대, 수자원 절약·확충 활동 등을 추진한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공사는 지난 117년간 농어촌과 함께 성장해왔다”며 “이번 비전 데이를 계기로 미래세대의 감각과 조직의 실행 역량을 결집해 변화와 혁신을 일상으로 만드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aT, 식량위기 17개국에 쌀 15만t 원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8일 부산항에서 나미비아로 가는 1632 t의 해외원조 쌀 출항을 끝으로 식량원조협약(FAC)에 따른 15만 t의 쌀 원조를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FAC에 가입한 이후 aT를 식량원조 실행기관으로 지정하고, 매년 쌀

5만 t을 원조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쌀 원조량을 10만 t으로 확대하고, 올해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15만 t을 원조했다. 원조된 쌀은 기후변화 및 분쟁 등으로 식량위기에 처한 케냐, 우간다 등 17개국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원조에는 지난해 수교를 맺은 쿠바를 비롯

해 나미비아, 타지키스탄, 레바논 등 신규 수원국도 포함됐다. 전달된 쌀은 난민, 강제이주민, 영양 결핍 아동 등 818만 명에게 분배될 예정이다.
문인철 aT 수급이사는 “인도적 식량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가 ‘제로헝거’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힘을 보탤 수 있어 큰 영광”이라며 “원조 쌀 15만 t 출항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유관기관에 감사を 전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KCA, 국내 5G특화망 100개 시대 개막

중소·중견기업, 전주기 지원 강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국내 5G 특화망(이음5G)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사이트가 100개소를 공식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특화망은 지난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특화망 도입 정책을 시행한 이후 매년 연평균 60%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8일 LG전자가 5G 특화망을 도입하면서 정책 시행 4년 만에 100개소를 넘어서게 됐다.
이는 5G 특화망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생산성 향상 및 운영 효율 개선에 기여하고, 산업 현장의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위해 KCA는 국내 5G 특화망 도입 정책이

시행된 직후 ‘5G 특화망 지원센터’를 개설해 5G 특화망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요기업 컨설팅·구축 지원, 실증사업, 제도개선 등을 지원했다.
5G 특화망 지원센터는 추가 주파수 공급 추진, 수요기업·기관 맞춤형 컨설팅 강화, 제도 개선 발굴 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5G 특화망 도입 문턱을 낮추고, 구축 후 운영 단계까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훈 KCA 원장은 “이번 5G 특화망의 국내 구축 사이트 100개소 돌파 성과는 정부와 KCA 5G 특화망 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지원과 산업계의 적극적 도입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5G 특화망이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창고 매 매·임대

대 지 920평
건 물 680평 (1·2층)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127-3
(도로변·육교옆)

문의 062.220.0513
010.3646.2701